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since
1929.5.1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713-5254(사무실) 717-2605(담임목사실)
Homepage : http//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왕국절 제13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57. 즐겁게 안식할 날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 겨울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아갈 희망을 잃은 채 거리를 떠도는 많은 이들을 기억합니다. 노동자들과 농민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절망과 탄식으로 올리는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핏발선 눈길들이 부드럽고 평안하게 변화되도록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름'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의 여백을 창조해주시고, 공존의 지혜를 심어주십시오. 흰 눈이 내린다는 소설 절기에 우리 모두의 거친 마음을 당신의 순결한 은총으로 덮어주십시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습 2:3 …… 인도자

♠ 교 독 문 …… 10. 시편 27 편 …… 다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함께

대표기도 …… Ⅰ. 곽권희 집사 Ⅱ. 구성실 장로

사도신경 …… 다함께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1. 535.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 다함께

성경봉독 …… Ⅰ. 행 12:1-12
Ⅱ. 시 30:4-12 …… 다함께
안종일 집사

찬 양 …… 성가대

말 씀 …… **Ⅰ. 함께 기도합시다**
Ⅱ. 아침을 기다리며 ……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358. 아침 해가 돋을 때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59. 성전을 떠나 가기 전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밤이 지나면 아침이 밝아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 함 께 :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힘차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에스겔 통독 강좌(12)	로마서 강해(60)
기도 : 박범희 집사/조병주 권사	기도 : 염혜영 선생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황경순 선생 이용한 장로	다함께 박효선 집사

11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중수	박석희	구성실	장혜숙	문영혜
	헌금위원	한완식	김준호	이호원	조병주	최숙화	이동규

▣ /믿/음/으/로/읽/는/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농도

● 자신의 제한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면적도 역시 좁았었다. 시간도 공간도 제한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신 말씀도 적었다. 그러나 많은 고통과 함께 무한한 사랑도 그곳에 있었다.

● 자기를 온전히 내놓으면서 행동하는 것은 곧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하나의 투쟁이다. 따라서 이것도 하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세상 구원에 이바지하는 '보람있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반면 자기중심적으로 흘러 이 세상에 분열을 가져오는 행위는 죄를 형성한다.

사도적 생활에서 긴장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바치고, 의무수행에 있어서의 어려움, 제한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무거움, 이것들은 사도적인 활동에 풍요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다.

● 우리의 생활에서 긴장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긴장을 너무 크고 괴로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며, 특히 이것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사랑에 달려있다.

● 우리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주실 때에는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까지도 함께 주신다. 그러므로 충실히 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초조하고 낙담하는가?

● 이러한 순간에,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사람에게는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고 믿지 않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진정한 동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형제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원의보다는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오만, 지배욕, 은폐된

생활에서 혹은 복잡한 가정생활에서 벗어나려는 구실이 개입될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것이 활동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요한 것은 우리 활동의 양(量)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농도에 있는 것이다.'

● 활동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해도 우리들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인류의 전반적인 상승에 참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분 안에서 행동한다면 우리들은 아버지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이다.

●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활동분야가 다양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는 더욱 더 유일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관상하기 위해 멈출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우리들의 활동의 깊은 통일을 발견하고 그 통일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 만일 참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분산된다면 이것은 일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 하나하나에 나를 완전히 쏟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을 때 일에 전심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나 다른 부분은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 유감스러운 감정을 품고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지나치게 과거만을 생각하며 집착하는가 하면 또 미래만을 꿈꾸며 성급히 나가려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반성할 줄을 알아 내적인 일치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훌륭하고 완전하게 할 것이다. (미쉘 꽈스트, <<그분과의 만날 약속>> 중에서)

● 삶이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자유로이 형제들과 하나가 되고,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매일 조금씩 더 내면의 목소리가 형제를 향해 "네가 고통받을 때 나도 아파"라고 소리지르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지 않고서야 어찌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으며, 참된 삶의 길로 들어섰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 마/음/으/로/읽/는/글

길 잃은 날의 지혜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흙과 뿌리를 보살펴주십시오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현실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옳음 작은 차이/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것 속에 이미 큰 길로 나가는 빛이 있고
큰 것은 작은 것들을 비추는 방편일 뿐입니다

현실 속에 생활 속에 이미 와있는
좋은 세상을 앞서 사는 희망이 되십시오
(박노해)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김근종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조관행 홍선희 정완숙 김재광 김혜권 이유선 방극숙 박정숙 조병무 송양진 임보람 염혜영 김철수 유영남 안정숙

월정헌금:
권혁순 박혜경 하정석 이명희 이지훈 최주환 문복순 백혜성 김성경 오복순 이갑재

감사헌금:
장혜숙 차덕철 최주환 정진경 염혜영 김상현 박경희 정원석 김현영 조관행 홍선희 원로남선교회 미래흉부외과 무명1

생일감사헌금: 조병무 조해인 송양진 송희원

추수감사절헌금: 36,225,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박 옥 식	차 혜 심	노 봉 님	김 애 경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배 부 례	김 영 한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김 명 희	정 진 경
가 나 안	유 영 남	문 영 혜	문 영 혜	장 혜 숙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문 금 석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임 창 선	박 홍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이 인 섭	송 의 섭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김 재 광	이 기 분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오 복 순	오 복 순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최 종 원	이 정 은
가버나움	구 성 실	안 홍 숙	안 홍 숙	김 정 섭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정 영 선	백 혜 숙
갈라디아	송 양 진	유 경 순	김 혜 권	안 정 숙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배 삼 순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박 혜 경	조 항 미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교 회	교 회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2003년 -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골4:17)

1. **임원회 :** 예배 후 11월 정기 임원회가 열립니다.
2. **대강절기** : 다음 주일(30)부터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온전히 비워 주님이 머무실 자리를 마련하는 절기가 되기 바랍니다.
3. **특별 새벽기도회** : 대강절기 중 12월 1일(월)부터 21일(일)까지 석 주 동안 특별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4. **보고 :** 당회를 앞두고 각 부와 선교회는 보고서(임원조직, 활동사항, 예정사항 포함)를 작성해서 금주 중에 꼭 제출해주십시오.
5. **평화교육포럼 :** 감리교 평화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포럼이 28일(금) 오후 2시 정동제일교회(은명홀)에서 열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6. **신앙실천 :** 왕국절기(오순절기에 포함됨)가 끝나기 전에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을 하나쯤 청산하기 위해 결단하십시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초등부	10:50	교육관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학생회실	오후집회	14:00	교육관
2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1 청년회	16:00(±)	교사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